

KLPGA 하반기 첫 대회 25일 영암서 열린다

팬텀 클래식 총 상금 6억원 규모...무관중 대회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반기 대회가 25일 전남 영암에서 개막하는 팬텀 클래식으로 막을 올린다.
KLPGA 투어는 "25일부터 사흘간 영암 사우스링스 영암 컨트리클럽에서 2020 팬텀 클래식을 총

상금 6억원 규모로 개최한다"고 8일 발표했다.
팬텀 클래식은 8월 16일 끝난 대우위니아 MBN 여자오픈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열리는 올해 하반기 첫 대회다.
원래 이 기간에 열릴 예정이던 하나금융그룹 챔

피언십이 11월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9월 말 일정이 비어 있었다.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이 11월로 옮겨 KLPGA 투어의 하반기 첫 대회는 10월 8일 개막하는 제21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이 되는 상황이었으나 팬텀 클래식 개최로 9월에 대회가 성사됐다.
KLPGA 투어는 "최근 20억원 예산을 추경해 대회 상금을 출연, 신규 스폰서 유치에 나섰고 KLPGA와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크리스에프엔씨

가 KLPGA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았다"고 대회 성사 배경을 설명했다.
팬텀 클래식은 2016년부터 2년간 열린 바 있고 올해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려로 인해 무관중 대회로 진행된다.
크리스에프엔씨 오진석 회장은 "대회가 연달아 취소돼 투어 선수들과 관련 업계 어려움이 가중되

는 상황에서 골프업계를 대표하는 한 기업으로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크리스에프엔씨는 핑, 팬텀, 파리게이트, 마스터바니에디션, 세인트앤드류스 등 5개 골프웨어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박현경, 이정은, 오지현, 김민선, 김아람 등 20여명의 선수에게 골프 의류를 후원한다. /연합뉴스

임성재 시즌 수입 72억원

일주일에 1억3000만원 벌어...페덱스컵 최종전 11위로 마감

'2년 차 징크스' 깨고 맹활약

임성재(22)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년 차 시즌을 마무리했다.
임성재는 8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끝난 PGA 투어 2019-2020시즌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을 최종합계 10언더파 274타를 기록하며 단독 11위로 마쳤다.
2018-2019시즌 PGA 투어 신인상을 받으며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19위에 올랐던 임성재는 두 번째 시즌에는 자신의 첫 우승과 함께 페덱스컵 순위도 11위까지 끌어올렸다.
임성재로서는 '2년 차 징크스'라는 단어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한 해였다.
지난 시즌 신인상을 받았지만 '우승이 없다'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던 임성재는 올해 3월 혼다 클래식에서 첫 우승을 일궈냈고 지난해 9월 샌더슨 팜스 챔피언십 준우승, 지난해 10월 조조 챔피언십과 올해 3월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3위 등의 성적을 냈다.
3월 혼다 클래식 우승에 이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3위 등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페덱스컵 랭킹 1위를 달린 임성재로서는 하필 그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투어 일정이 약 3개월 중단된 것이 아쉬웠다.
6월 투어 재개 후 첫 대회였던 찰스 슈와브 챌린지 공동 10위로 좋은 성적을 냈지만 이후 6개 대

회에서 첫 탈락 두 번에 최고 성적이 공동 35위였을 정도로 투어 일정 중단 이전의 상승세가 끊겼다.
하지만 임성재는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정규 대회였던 윈덤 챔피언십 공동 9위로 반등에 성공했고, 투어 최강자 30명만 실력을 겨루는 이번 투어 챔피언십에서는 2라운드까지 세계 랭킹 1위 더스틴 존슨(미국)을 1타 차로 바짝 쫓는 단독 2위까지 오르며 선전했다.
시즌 상금 433만 781달러로 상금 순위 9위에 오른 임성재는 보너스까지 더하면 600만달러가 넘는 수입을 챙겼다.
정규 대회 최종전인 윈덤 챔피언십까지 페덱스컵 순위에 따라 지급하는 '윈덤 리워즈' 보너스 100만달러와 페덱스컵 최종 순위 11위에 주는 보너스 75만달러가 임성재에게 돌아갔다.
이로써 임성재는 2019-2020시즌 공식 상금과 보너스를 더해 총 608만 781달러의 수입을 기록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72억3000만원 정도 되고 이를 주급으로 바꾸면 1주일에 약 1억 3000만원씩 벌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임성재는 투어 챔피언십을 마친 뒤 "이번 주 출발이 좋아서 10일 안에 들었으면 좋았겠지만 어제와 오늘 다소 어렵게 끝났다"며 "앞으로 큰 대회가 많이 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 부담감이나 긴장감 등의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8일 열린 페덱스컵 최종라운드에서 임성재가 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178억원 주인공' 은 존슨

페덱스컵 21언더파로 우승...2019-2020시즌 왕좌에 올라

더스틴 존슨(36-미국)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19-2020시즌 왕좌에 올랐다.
존슨은 8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이스트레이크 골프클럽(파70-7319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2019-2020시즌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2개로 2언더파 68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21언더파 269타의 성적을 낸 존슨은 공동 2위 저스틴 토머스(미국)와 켄드 쇼플리(미국)를 3타 차로 따돌리고 시즌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챔피언에게 주는 우승 보너스 1500만달러(약 178억원)를 받게 됐다.
2007년 창설된 페덱스컵 플레이오프에서 존슨이 시즌 챔피언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존슨은 6월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지난달 플레이오프 1차전 노던 트러스트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PGA 투어 통산으로는 23승째를 달성했다.
또 존슨은 이번 우승으로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대회에서 통산 6번째 정상에 올라 최다승 단독 1위가 됐다. 존슨 다음으로는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5번 우승을 기록 중이다.
존슨은 올해 플레이오프 3개 대회 가운데 노던 트러스트와 이번 대회를 제패했고, 2011년과 2017년 노던 트러스트, 2010년과 2016년 BMW 챔피언십에서도 우승했다.
2016년 투어 챔피언십 이전까지 페덱스컵 1위를 달렸지만 마지막 투어 챔피언십에서 매킬로이에게



8일 PGA 투어 2019-2020시즌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에서 우승한 더스틴 존슨이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전을 허용해 아쉬움을 남긴 존슨은 4년 만에 다시 잡은 페덱스컵 챔피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투어 챔피언십 이전까지 페덱스컵 1위가 마지막 투어 챔피언십을 마치고도 끝까지 페덱스컵 챔피언이 된 것은 2009년 타이거 우즈(미국) 이후 올해 존슨이 11년 만이다. /연합뉴스

막느냐...푹리느냐

8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에서 열린 UEFA 네이션스리그 리그 A 조별리그 1조 2차전에서 네덜란드 골키퍼가 이탈리아 선수의 슈트를 막기 위해 몸을 날리고 있다. 이탈리아가 1-0으로 이겼다. /연합뉴스

코로나시대 내실 다지는 전남체육

도체육회, 각종 대회 참가비 불용액 일부 경영혁신·선진화 구축 활용

10억 확보 5대 핵심사업 추진

전남도체육회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체육행정을 튼실하게 다지고 있다.
코로나로 각종 대회가 순연되는 등 아마추어 스포츠가 정체되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내실 다지기에 나선 것이다.
전남도체육회는 8일 "코로나19사태 때문에 순연된 2020년도 각종 종합체육대회 참가비(도비) 불용액 일부를 전남체육회 경영혁신·선진화 구축 사업비로 활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체육회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지원 결정으로 10억 여원 예산을 확보해 5대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사업은 ▲전남체육회 자체 전자결재시

스템 구축사업 ▲전남체육 75년사(가칭) 편찬 ▲스포츠과학센터와 융합한 스포츠컨디셔닝센터 구축 ▲전남스포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남스포츠인권센터 운영 등이다.
도체육회는 이들 사업을 바탕으로 체육행정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 체육인을 비롯한 도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사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우 전남도체육회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한 특수상황 등 그 어느해보다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전남도의 지원으로 전남체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게됐다"며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전남체육회로 거듭나기 위해 경영 혁신과 선진화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테넷
2관	기괴괴괴 성형수, 테넷
3관	에이바, 오 문화
4관	오 문화
5관	오 문화
6관	기괴괴괴 성형수
9관	테넷
7관 씨네키움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오케이 마담
8관 씨네키움	기괴괴괴 성형수 고스트 오브 워, 반교: 디텐션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전시 **경계의공간**
2020. 9.1.(화) ~ 11.1.(일)
광주문화회관 갤러리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운드 드라마 **알폰스 도데의 '별'**
2020. 9.24.(목) AM 11:00, PM 3:00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11시 음악산책 **정재형의 프롬나드**
2020. 9. 29.(화) AM 11:00
광주문화회관 소극장